

원석공예를 이용한 헤어장신구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air Crafts using on Gemstone

주저자 : 신임순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박사과정

Shin Im Soon

Dep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공동저자 : 김선아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 산업전공 교수

Kim Sun Ah

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교신저자 : 김성남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Kim Sung Nam

Dep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방법

2. 원석공예 장신구의 일반적 배경

- 2.1. 원석공예에 대한 이해
 - 2.1.1. 원석의 이해
 - 2.1.2. 원석 공예의 이해
 - 2.1.3. 원석공예의 종류
 - 2.1.4. 원석공예의 활용
- 2.2. 헤어장신구에 대한 이해
 - 2.2.1. 장신구의 개요
 - 2.2.2. 해외 헤어장신구의 역사
 - 2.2.3. 국내 헤어장신구 역사
 - 2.2.4. 현대의 헤어장신구 이해
- 2.3. 원석공예 장신구에 대한 이해
 - 2.3.1. 국내 원석공예 장신구 현황
 - 2.3.2. 해외 원석공예 장신구 현황

3. 작품제작

- 3.1. 작품제작 방향설정
- 3.2. 디자인방식
- 3.3. 작품제작의 특징
- 3.4. 제작과정
- 3.5. 작품해설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논문요약

국내외 원석공예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는 소규모공방을 중심으로 원형형태의 원석을 주로 이용한 장신구가 주류를 이루고 해외에서도 몇몇 장신구회사 이외에는 원석공예 작품들을 보기가 힘들었다.

대부분 국내외 원석공예 장신구는 펜던트나 목걸이, 귀걸이, 팔찌류가 가장 많았으며 헤어장신구는 드문 편이었다.

경쟁력 있는 원석공예 헤어장신구 제작을 위해서는 대중성 보다는 원석의 특성을 살려 제작해야하는데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원석 가공을 최소화하여 원석공예의 장점인 자연미, 단순미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둘째, 헤어장신구의 특성상, 너무 두껍거나 무게가 나가는 형태는 지양한다.

셋째, 원석의 종류를 선정 시 두께가 얇은 장방

형의 원석 계열 또는 크지 않은 원석을 사용토록 한다.

넷째, 원석 자체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금속주물과 추가적인 원석을 덧대거나 붙이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를 연출한다.

다섯째, 원석자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이 적은 장점을 살리기 위해 나머지 구성요소 부분에 여러 가지 제작기법을 적용해본다.

여섯째, 원석공예 장신구 현황분석에 따라 기존에 사용 중인 원형, 타원형 등의 가공기법이 아닌 국내에 미시도 된 제작기법을 적용해본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제작방안을 토대로 아직은 국내외적으로 미개척분야인 원석공예를 이용한 헤어장신구를 작품으로 제작해 보았으며 향후 원석공예를 이용한 장신구에 원석의 거친 면을 그대로 살리는 기법을 향후 원석공예의 가능성 있는 제작기법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원석공예, 헤어장신구, 수공예

Abstract

Stone Crafts Hair Ornaments Reason for the small craft industries include first stone here and abroad that can be easily processed form and the pursuit of mass-produced forms and processing operations are relatively simple.

Most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gemstone jewelry, crafts pendant, necklaces, earrings, bracelets, hair ornaments currents are the most common was difficult to find.

Hair jewelry gemstone craft competitive production, rather than popularity to be produced utilizing the properties of stones leading to measures derived from the study were the following assumptions.

First, the small processing for natural stone crafts.

Second, the nature of hair ornaments, too thick or weighing form is avoided.

Third, when selecting the type of rough stone, you choose thin or rectangular stones that are large will ever use.

Fourth, consist of the metal casting with gemstone and additional stones to attach each others to produce a variety of forms.

Fifth, different production techniques applied.

Sixth, try to craft jewelry, gemstones, depending on

being not used technique in domestic.

On the other hand, these assumptions are based on the fact gemstone jewelry, crafts, the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and natural images from the comfort of selection, of stones, and stones of the features of shape and colors by selecting the nearest stone was produced.

This paper suggests the rough craft of gemstone presents a new production techniques.

Keyword

Hair Crafts, Gemstone Art, Hand Craft Art

1. 서론

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원석공예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 귀금속 보석 산업의 작금의 난제인 해외 수입품 증대, 인건비 상승, 금값 상승, 인공장신구 범람의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제시에 그 목적을 두었다.

정밀하게 가공된 보석이 아닌 원석은 싸고 견고하고 뿐만 아니라 원석자체가 가지는 그 예술적 가치 또한 깊이가 있다. 하지만, 희소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동향 등으로 인해 원석공예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개발이 미미한 분야이고 그 가치 또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노란, 2009).

원석공예를 통한 여러 분야의 장신구 개발이 가능하나 현재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에 비해 원석공예를 이용한 반지, 귀걸이, 헤어장식의 상품화는 미비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석과 원석공예에 대한 이해, 헤어장신구에 대한 기초연구, 국내외 원석공예 장신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이용한 원석공예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 자체가 희소성이 있어 고가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저가의 원석을 이용한 공예제작으로도 충분히 시장성 있고 희소성 있는 작품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현재 원석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원석공예 가운데 헤어장신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사전연구로서 원석공예의 개념, 역사, 종류 및 활용을 살펴보고 헤어장신구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원석공예 및 헤어장신구

의 시대적 특징과 제작 기법 등을 파악한다.

둘째, 원석공예를 이용한 장신구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디자인 기법을 분석해보고 미비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 및 제작기법을 제안한다.

셋째, 위에 언급한 새로운 개념의 제작기법에 기초하여 언급한 자연의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질감, 색상, 표현력 등을 가지는 헤어장신구를 직접 제작해 본다.

한편, 제작 시 원석을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만드는 장신구인 만큼 화려하고 현란한 디자인 보다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해 보았다.

제작방법은 원석을 절편 또는 장방형 등으로 가공하여 서로를 덧대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금속과 원석을 결합한 장신구의 박아 넣고 끼워 넣는 전통적인 제작방식부터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기법까지 여러 형태로 제작해 보았다.

2. 원석공예 장신구의 일반적 배경

2.1. 원석공예에 대한 이해

2.1.1. 원석의 이해

일반적인 원석의 의미는 귀금속보석이나 그 이하의 보조 귀금속을 포함한 지구상의 광물 3000여종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금속이든 일반 광물이든 원석으로 지칭하며 이를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자연스러움을 유지한 형태로 가공하는 예술품 제작을 원석 공예로 표현하였다.

보석 자체의 가공을 통한 시장형성에 비해 원석을 이용한 공예품 시장은 미비한데 일반적으로 원석은 최고가 보석류에 비해 저렴한 원자재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여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풍부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고 가공의 난이도 또한 고강도의 보석류와는 차이가 나서 보다 여러 형태의 제작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1.2. 원석 공예의 이해

귀금속보석은 금, 은, 백금, 다이아몬드 등 자연 광물질 중에서 고급 광물을 섬세하게 가공 처리하는 것에 비해 원석 공예 장신구란 이보다 가공이 어려운 보석이나 보석 보다 낮은 등급의 광물을 활용하여 주로 수공으로 제작하고(노란, 2009, pp.10), 원석의 특성이나 질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작되며 고가의 귀금속보석과는 시장구조, 원석 수급 및 가격, 세공방법과 기술, 가공방식, 가격 등에서 큰 차이가 있

다.

원석공예는 고가의 보석보다는 중저가의 원석을 대상으로 가능한 가공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원석의 질감 및 빛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만들어 내는 공예방식이다.

한편, 루비, 사파이어, 자수정 등 고급 보석류의 경우에도 원석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경우, 원석 공예로 분류하기도 한다.

원석공예의 장점으로는

첫째, 원석의 섬세한 세공보다는 원석상태 그대로의 상태를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하다.

둘째,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수공예 기법으로 소량 생산하므로 희소성과 작품가치가 높다.

셋째,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보다 자연 그대로의미를 수용하는 기법으로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원석 공예의 단점으로는

첫째, 품질이나 예술성과는 무관하게 고가의 보석으로 만든 작품을 선호하는 국내에서는 대중성을 가지기가 어렵다.

둘째, 아직 국내에는 원석공예만의 시장이나 유통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고 국내에 알려지고 생산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시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셋째, 원자재인 원석의 수급이 쉽지 않아 이 또한 원석공예품이 대중적으로 제작되는데 어려운 요소가 된다.

넷째, 현재의 미형성된 시장구조와 원석공예의 초보적 수준이 향후 발전가능성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대중화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2.1.3. 원석공예의 종류

(1) 원석공예에 사용되는 원석의 종류

국내의 경우, 지르코닐, 자수정, 터키석, 진주, 캣츠아이, 가넷, 상아, 토르말린, 장미석, 자개, 레브라도라이트, 산호, 오톨스, 칼세도니, 지마노, 월정석, 백수정, 호박, 인도마노, 레몬석, 연수정, 텍다이트, 제다이트 등이 주로 사용된다.

(2) 원석공예 장신구의 종류

원석공예를 이용한 장신구의 대표적인 분류로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반지 등으로 구분하며 헤어장신구는 현대에는 오히려 제품이 미미한 실정이다.

2.1.4. 원석공예의 활용

일반적인 장신구인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반지 외에도 헤어장신구, 모자장신구, 의복장신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핸드폰 고리 및 개인용통신기기 장식 등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장신구가 아닌 공예품 자체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2.2. 헤어장신구에 대한 이해

2.2.1. 장신구의 개요

인류가 장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선사시대의 유물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때 장식의 의미는 다른 종족과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부의 과시나 힘을 상징하는 신분의 상징이었으며, 악령을 쫓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주술적인 의미였다.

특히 인간이 미적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은 신체의 추한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장신구를 다는 것에서부터라고 보며, 이것이 장신구의 시초라고 생각된다.

장신구란 신체의 일부에 직접 쓰거나 걸거나 또는 끼는 장식품과 의복의 장식을 위해 붙이거나 매거나 또는 늘어뜨리는 소품을 지칭하며, 그 외 모든 장식 목적에 필요한 소구(小具)까지를 포함한다(황호근, 1976, pp.18).

장신구의 종류로는 허리띠, 팔찌, 반지, 귀고리, 목걸이, 노리개, 헤어장신구 등이 있으며 장신구의 기능으로는 원초적인 미적 감각을 나타냄과 동시에 부와 권력의 표시수단으로의 기능이 있었다(국립민속박물관 편, 1989).

2.2.2. 해외 헤어장신구의 역사

헤어장신구의 역사를 보면 BC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¹⁾ 이전부터 머리핀, 빗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소품들을 모아 원시시대부터 머리손질이나 장식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주현, 2002).

원석을 이용한 장식의 기원을 찾고자 하면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며 이집트나 로마의 유물 중에서 이러한 원석을 이용한 많은 공예품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인들이 청동이나 금으로 장식하였으며 왕과 왕비는 신을 상징하는 독수리 장식의 왕관으로 몸과 머리를 장식하였다(성경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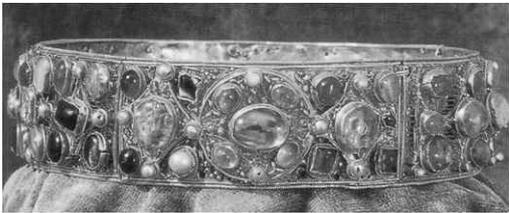
1) Fiel Enterprises Educational Corporation 'hair dressing', *The Work book Encyclopedia*.

김영경, 1995).

고대 그리스 여인들은 부조로 된 장식적인 머리핀을 사용하였으며 동물이나 꽃 등 자연을 상징하는 장식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그리스 여인들은 머리를 한 묶음으로 묶어 정수리에 고정시키거나 매듭으로 땅아 속발핀(bodhin)으로 고정시켰으며 이러한 핀들은 상아, 금, 칠보, 원석 등으로 장식되었다(김영경, 1995).

머리의 자연미를 중시한 비잔틴에서는 관이나 장식들을 중요시하여 말아 올린 톨스타일에 작은관(Tiara)을 쓰고 그 위에 베일을 쓰곤 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뼈나 바늘핀으로 머리를 고정하다가 베일이나 두건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라졌다가 초기 르네상스시대에 머리핀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1]의 쿠니군데 황후의 왕관은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원석공예 헤어장신구이다.



[그림 1] 쿠니군데 황후의 왕관(1010~1020)

대체로 16세기에 유럽에서는 정교한 머리장식을 사용하였고 영국의 엘리자베스1세(1558-1603)는 머리장식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김영인, 2002, pp.18).

전반적으로 원석 다면 컷팅 기술이 발달하기 전인 14세기 이전의 보석공예는 원석공예로 보아도 무방하다. 르네상스[그림 2, 3], 빅토리아 시대[그림 4, 5, 6]에는 화려한 장식에 원석공예가 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르네상스시대 머리장식



[그림 3] 르네상스시대 머리장식



[그림 4] 나폴레옹 3세 부인 티아라(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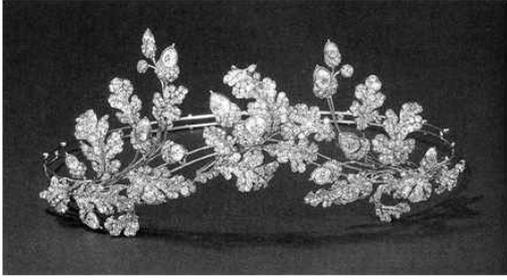
[그림 5] 빅토리아여왕 에메랄드 티아라

이후 보석 세공 기술 및 컷팅 기술의 발달로 화려한 작품들이 등장, 로코코, 아르누보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원석공예는 주류에서 벗어나게 된다.

로코코 양식[그림 6]은 1730년대에 등장하여 전 유럽의 장식미술에 영향을 미쳤다(정무정, 2003). 로코코의 비대칭형은 1780년대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우아하고 유려한 꽃, 깃, 앞사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김범순, 2010).



[그림 6] 로코코시대의 머리장식



[그림 7] 19C 빅토리아 시대의 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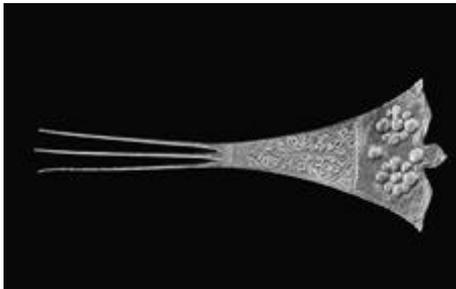
아르누보는 유럽의 전통적 예술에 반발하여 예술을 수립하려는 당시 미술계의 풍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담쟁이 넝쿨이나 식물의 형태를 연상케 하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자연형태에서 모티브를 빌어 새로운 표현을 얻고자 했다(강정아, 2010).



[그림 8] 아르누보시대의 머리장식

2.2.3. 국내 헤어장신구 역사

국내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비녀를 사용해왔다고 하는데 신라시대에는 빗 자체가 헤어장신구로 사용되었으며 빗에 원석을 박거나 금으로 장식을 하여 매우 화려하였다. [그림 9]



[그림 9] 백제시대 뒤꽂이(무령왕릉 출토)

고려시대에는 헤어장신구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머리고정을 위해 비녀계와 차두를 사용하였다(황호근, 1976, pp.272).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이 큰머리, 어머리, 엷은머리, 조짐머리, 쪽머리, 귀밑머리, 새양머리 등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헤어장신구가 발달하게 되었다.

쪽진머리가 대중화되면서 비녀의 사용이 일반화

되었으며 비녀의 재료로는 금, 은, 옥, 비취, 산호, 진주, 자개, 낫쇠, 뿔, 대나무, 박달나무 등이 사용되었다(김태정, 2000, pp.46-47).

뒤꽂이²⁾는 쪽진 머리 뒤에 덧꽂는 장식으로서 헤어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했다. [그림 10] 뒤꽂이는 금, 은, 옥, 산호, 비취, 진주 등을 사용하였는데 약 10CM 정도의 길이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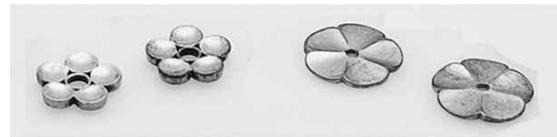


[그림 10] 연봉 뒤꽂이

기타 첩지³⁾, 떨잠⁴⁾, 땡기 등의 머리장식도 존재하였으며 조선시대 남성들의 경우에도 관자⁵⁾, 풍잠⁶⁾ 등 상투, 망건 등을 정리하고 고정하기 위한 머리장식을 사용하였고 관모의 경우에는 정자⁷⁾와 입영⁸⁾ 등의 머리장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11] 첩지⁹⁾



[그림 12] 관자

2.2.4. 현대의 헤어장신구 이해

현대에 들어서는 헤어장식이 머리카락이나 모자를 꾸며

- 2) 뒤꽂이는 비녀 이외에 쪽진 머리 뒤에 덧꽂는 수식물을 모두 총칭
- 3) 첩지는 부인이 예복을 입을 때 머리 위에 꾸며 품위를 돋보이게 하던 장식품의 하나 [그림 11]
- 4) 떨잠은 일명 '떨철반자'라고 하는 조선시대 여성 머리장식
- 5) 관자는 상투를 틀 때 두르는 망건을 고정하는 끈인 당줄을 걸어 땔 수 있게 한 것. [그림 12]
- 6) 풍잠은 망건의 앞이마에 달아 갓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
- 7) 정자는 갓의 정수리부분에 달아 직위에 따라, 금, 은, 옥, 수정 등으로 만들었다.
- 8) 입영은 갓끈을 의미하는데 상아, 마노, 산호 등으로 중요한 남성 장신구 역할을 하였다.
- 9) 이화여자대학교(1999) '담인 복식미술관 개관기념도록'

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요즘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패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현대의 헤어장식으로는 장식꽃 형태의 코사이지, 머리를 정리하는 띠 형태의 헤어밴드, 머리를 묶거나 모자에 크라운을 두를 때 사용하는 리본, 머리를 뒤에서 묶고 덧붙이는 시늉, 모자 등에 장식되는 깃털, 왕관형 머리장식의 티아라, 이마 한가운데 장식이 오게 하는 페로니에르, 비녀와 비슷한 헤어스틱, 그물 모양의 헤어네트, U자형으로 이중으로 잠그거나 실핀형으로 된 가장 대중적인 머리핀, 용수철 형태를 응용한 헤어클립이 있다(이미연, 2006).

2.3 원석공예 장신구에 대한 이해

2.3.1. 국내 원석공예 장신구 현황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고가의 제품보다는 재래시장이나 가판, 노점, 공예작가, 문화센터 등에 의해 소규모로 주로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석 공예장신구는 창작성과 섬세한 수공예가 필요한 분야로 한국인들의 손의 정교함과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아직 국내여건이 디자인이 떨어지고 원석을 고정시키는 주물의 질이 낮은 편으로 이 분야는 현재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의 분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패션타운, 문화센터 등을 통해 제작된 국내 원석공예 작품을 살펴보니 대부분 원석을 등글거나 타원형으로 가공하여 실에 끼거나 금속으로 고정된 형태로 팔찌[그림 13], 반지[그림 14], 귀걸이[그림 15], 목걸이[그림 1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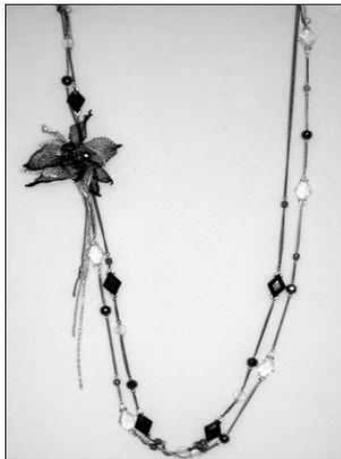
[그림 13] 원석공예를 이용한 팔찌(오닉스)¹⁰⁾



[그림 14] 원석공예를 이용한 반지(아마조라이트)¹¹⁾



[그림 15] 원석공예를 이용한 귀걸이(산호, 오닉스)¹²⁾



[그림 16] 원석공예를 이용한 목걸이(지르콘)¹³⁾

2.3.2. 해외 원석공예 장신구 현황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외 원석공예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의 원형위주의 가공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석자체의 곡선과 형태를 살리는 형식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 원석공예 장신구의 동향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1) 디자이너 은현의 작품(blog.daum.net/sappy).

12) 윤슬공방 (<http://yunseul.co.kr>).

13) 겨울꽃향기, 조미현 디자이너 작.

10) 강남풀잎문화센터 작품.

첫째, 원석을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가공작품을 만드는 방식으로[그림 17] 국내의 대부분 작품들은 이 분류에 속한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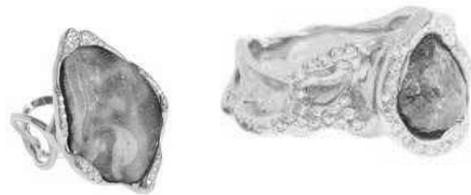
[그림 17] 원형기반 가공 원석공예 장신구¹⁴⁾

둘째, 원석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표면가공을 통해 비정형성을 유지하고 자연미를 나타내는 형태로 제작하는 방식이다.[그림 18]



[그림 18] 표면처리 비정형 원석공예 장신구¹⁵⁾

셋째, 원석을 거의 가공하지 않고 원석자체의 거친 질감과 색상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는 작품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제작방식이다. [그림 19] 이 방식은 근본적으로 수공업으로 이루어지고 대중성이 떨어지는 가장 원시적인 원석공예의 기법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예술성과 자연미가 뛰어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그림 19] 최소 가공 원석공예 장신구¹⁶⁾

3. 작품제작

3.1. 작품제작 방향설정

원석공예 장신구중 헤어장신구의 연구 및 제작이 가장 미미하다는 점에 착안, 원석공예를 이용한 헤어장신구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석공예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원석공예 헤어장신구 제작을 위해서는, 대중성 보다는 원석의 특성을 살려 제작해야 하는데 그 방안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출하였다.

첫째, 원석 가공을 최소화하여 원석공예의 장점인 자연미, 단순미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둘째, 헤어장신구의 특성상, 너무 두껍거나 무게가 나가는 형태는 지양한다.

셋째, 원석의 종류를 선정 시 두께가 얇은 장방형의 원석 계열 또는 크지 않는 원석을 사용토록 한다.

넷째, 원석 자체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금속주물과 추가적인 원석을 덧대거나 붙이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를 연출한다.

다섯째, 원석자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이 적은 장점을 살리기 위해 나머지 구성요소 부분에 여러 가지 제작기법을 적용해본다.

여섯째, 원석공예 장신구 현황분석에 따라 기존에 사용 중인 원형, 타원형 등의 가공기법이 아닌 국내에 미시도 된 원석 최소처리 제작기법을 적용해본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원석공예를 이용한 헤어장신구를 제작해보았다.

3.2. 디자인방식

선행연구를 통하여 원석공예의 특성상 원석을 최소한의 가공을 거쳐서 원석 자체가 나타내는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자연미를 나타내도록 했으며 자연의 이미지를 원석으로 그대로 표현하고자하는 바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일루전¹⁷⁾은 극대화시켜서 즉각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으로 디자인하였다.

16) Lucifer Vir Honestus社 작품.

17) 환상, 착각의 의미. 예술 작품을 볼 때 일어나는 심적 과정의 하나로 의식적인 자기착각을 의미한다.

14) <http://economicaljewelry.com>.

15) <http://economicaljewelry.com>.

3.3. 작품제작의 특징

형태와 내용적 측면에서 자연주의의 이미지를 살리고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원석공예 장신구의 특성을 이어받아 컷팅작업 전 균형적이고 거친 형태의 원석을 이용하는 것을 본 작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잡았다.

원석은 같은 형태로 가공하기가 어려워 한 디자인 당 하나의 제품만이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최소가치가 있으며 작업은 전통 금속공예기법부터 현대적 제작기법을 이용한 작업까지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으며 고가의 금, 은, 보석을 배제하였지만 수공예 작품의 느낌을 잃지 않으며 헤어장신구에 맞게끔 표현해 보았다.

3.4. 제작과정

작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첫째, 완료된 평면 디자인을 입체적인 3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디자인으로 모델링한다.

둘째, 모델링된 입체적인 3D 디자인을 RP(rapid prototyping) 장비를 사용하여 원본으로 출력한다. 셋째, 출력된 원본을 정밀 주조하여 제품으로 제작한다. 원석공예장신구는 금속의 인장강도가 중요하므로 정밀주조기법보다는 압연, 롤링, 인발 등의 수작업이 주요공정을 차지하게 된다(김경아, 이정임, 2006).

3.5. 작품해설

3.5.1. 작품1(이슬)



[그림 20] 작품1의 이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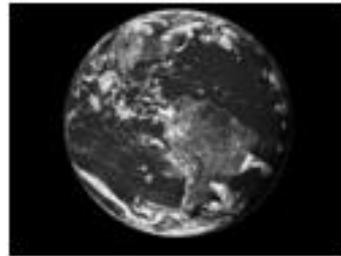


[그림 21] 작품1(이슬)

호안석, 황동을 재료로 한 방울의 이슬, 물방울이 떨어지기 전 순간을 삼각형의 원석과 함께 배치했다.

원석고정 원석이 지닌 고풍스러운 브라운 컬러와 맞게 골드컬러를 사용했으며 금속을 직접 녹여 우연의 효과로 나타난 흐르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 판을 대고 발을 세워 원석을 고정하고 물방울 형태의 금속 역시 주제를 부각함과 동시에 원석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3.5.2. 작품2(지구)



[그림 22] 작품2의 지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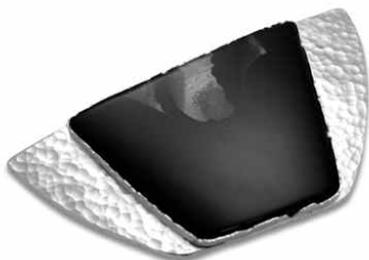
[그림 23] 작품2(지구)

아주라이트(남동석)가 주는 블루와 그린의 조합은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거칠지만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대지와 그를 부드럽게 감싸는 형태를 만들어 작은 지구와도 같은 모습을 오브제로 배치했다. 페이스트로 볼드하고 유연한 형태를 제작하고 그린, 블루와 매치할 컬러로 블랙과 골드를 선택하였다. 남동석 자체가 원형의 이미지를 가지고 직선적 형태의 페이스트로 잡아주어 자연적인 느낌을 살렸다.

3.5.3. 작품3(밤하늘)



[그림 24] 작품3의 밤하늘 이미지



[그림 25] 작품3(밤하늘)

검지만 빛나는 돌과 밤하늘은 닮아있다. 오닉스의 층에서 느낄 수 있는 희미한 구름 같은 이미지와 깨끗한 블랙의 조화를 심플하게 나타냈다. 원석은 마름모꼴로 가공하여 색상과 기하학적 모양의 상징이 일관성으로 가지도록 하였다. 뒤판은 망치로 무늬를 내는 단조기법 중 하나를 응용해 디자인했으며, 흔히 공예 주얼리에서 볼 수 있는 난집을 울퉁불퉁하게 표현해 심플한 형태 속에 디테일을 살렸다.

3.5.4 작품4(해변)



[그림 26] 작품4의 해변 이미지





[그림 27] 작품4(해변)

금빛 해변의 물결과 반짝이는 백사장을 표현해본 것으로 산호와 비슷한 형태의 금속은 파도처럼 웨이브지고 역시 배치한 산호에서 형태를 따온 위쪽 부분은 원석을 잡아줌과 동시에 비교적 딱 떨어지는 형태와 대비되어 시각적으로 다른 느낌으로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다. 파도를 마름모꼴의 산호석과 원형의 진주를 파도의 반짝임으로 표현해주는 것으로 자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진주를 포인트로 배치했는데 안쪽에 칩을 박아 이 역시 원석과 금속 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4. 결론 및 제언

원석공예는 원석을 가공하여 귀금속 보석을 만드는 정형적인 보석가공의 틀을 벗어나 자연의 돌 그대로 원석 그대로의 색상과 질감을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공예의 한 종류로서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작업을 최소화하는 공예의 기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실제 원석공예의 정의와는 달리, 대량생산과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작품들은 원형, 타원형 등 단순 가공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원석공예와 관련된 역사와 배경, 그리고 원석공예를 이용한 과거와 현재의 장신구를 살펴본 바 원석공예 장신구를 가공 상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현재 원석공예 장신구 분야에서 소외된 헤어장신구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선행연구에 따라 도출해 보았고 이를 직접 적용하여 작품을 제작해 보았다.

작품 제작시, 원석 중에서 작품 주제에 알맞은 이미지에 가까운 원석을 색상 및 질감 등을 고려, 선택하여 제작하였고 원석이 주는 단순함은 주변의 금속 재료를 강한 보석으로 선정하고 여러 금속가공기법을 사용하여 원석으로 인한 단조로움을 극복하도록 시도하였다.

작품제작결과, 완성된 작품은 원석 자체의 자연스러움으로 인하여 작품자체로의 자연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였으나 일부 작품을 실제 적용한 결과, 착용자의 헤어의 색상에 따라 원석을 선별하고 실용성면에서 작품 경량화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한편, 단순 원형 가공된 원석 사용 제품이 일반적 인 국내 원석공예 시장의 변화를 위해, 본 논문에서의 시제품 제작은 원석에 대한 최소처리기법¹⁸⁾을 이용한 원석공예를 시도해 보았다.

동 작품의 제작기법이 수공예이고 대중적인 생산은 힘든 기법이지만 그 예술성과 희소성, 자연미가 주는 가치는 국내 원석공예산업과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만한 분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월간미술.(1994).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전용일.(2006).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사.
 새우리말 큰사전(1981).
 김경아, 이정임.(2006). 공예가를 위한 금속공예기법. 주얼테크.
 이화여자대학교.(1999). 인복식미술관 개관기념도록.
 김영인외.(2002). 현대패션과 액세서리디자인. 효문사.
 황호근.(1976). '한국장신구 미술연구', 일지사.
 국립민속박물관편.(1989). 한국복식2000년사.
 김태정.(2000).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정무정.(2003). 현대미술총서. 열화당.
 노란.(2009). 원석공예 장신구에 대한 소비자 실태연구. 숙명여대학교 석사논문.
 김범순.(2010). 18세기 조선시대와 로코코시대 여성 헤어스타일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이미연.(2006). 부바르다아꽃을 이용한 웨딩헤어장신구 디자인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논문.
 성경희.(2005). 자연염색을 이용한 헤어장신구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이주현.(2002). 귀금속 헤어장신구 디자인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강정아.(2010). 아르누보 양식의 조형적 특징을 응용한 헤어디자인연구. 호남대학교 석사논문.
 김영경.(1995). 이집트 장식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Fiel Enterprises Educational Corporation. hair dressing. *The Work book Encyclopedia*

18) 원석의 질감이나 광택, 색상을 자연 그대로 살리며 수작업으로 가공하는 기법

